

엔터테인먼트

Entertainment

탤런트 박시후

'역전의 여왕' 캐스팅

탤런트 박시후가 MBC 월화극 '동이' 후속으로 방송되는 '역전의 여왕'에 캐스팅돼 김남주, 정준호와 호흡을 맞춘다.

9일 소속사에서 따르면 박시후는 이 드라마에서 황태희(김남주)의 도움으로 무신경한 재벌 2세에서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는 구용식 역을 맡았다.

'내조의 여왕' 제작진이 다시 묻진 '역전의 여왕'은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하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던 황태희가 결혼 후 예상치 못한 풍랑을 만나고 이를 이겨내는 과정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다.

'역전의 여왕'은 다음 달 18일 첫 방송될 예정이다.

“인기만큼 부담 많아 자다가도 벌떡 깨요”



영화 첫 주연 이민정

“처음 등장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음 뿐이지 제가 많이 보여 드린 게 없어요. 아직 스타는 아니죠. 제 이름을 듣고 ‘이민정이 나오는 작품은 불만해’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야 스타라고 생각해요.”

소주, 승용차, 화장품 등 배우 이민정이 모델로 나오는 각종 광고를 보면 요즘 그의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다.

이민정은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‘꽃보다 남자’에서 구준표의 약혼녀 역할로 얼굴을 알리더니 ‘그대 웃어요’에서는 단번에 주인공 자리까지 꿰차며 스타덤에 올랐다.

최근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민정은 “‘꽃보다 남자’가 대박이 나서 작품 덕을 많이 봤다”면서 “예전에는 인지도가 없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대본을 받아볼 수 있는 게 행복하다”고 말했다.

이민정은 “아직 알리지 않은 것 외에 저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지 굉장한 인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”며 겸손한 자세를 보였다. “상업영화 주연은 처음이고... 아직 길거리를 돌아다녀도 몰라보는 분도 많아요.”

그는 로맨틱 코미디 영화 ‘시라노-연애조작단’(16일 개봉)에서 회중 역

를 맡아 매력을 한껏 발산한다. ‘백야행’과 ‘켄트하우스 코끼리’에 조연으로 출연한 적이 있지만, 영화의 주연을 맡은 것은 처음이다.

극 중에서 회중은 두 남자 사이에서 고민한다. 회중을 짝사랑하지만, 연애에 서툰 상용(최다니엘)은 다른 사람의 사랑을 이뤄주는 ‘시라노 에이전시’를 찾아가는데 공교롭게도 이 조작의 대표 병훈(임태웅)은 회중의 옛 연인이다.

이민정은 김현석 감독이 쓴 시나리오에 반해 바로 출연을 결심했다고 했다. “차에서 촬영을 기다리면서 읽었는데 정말 웃겨서 화장실 가는 거 참아 가면서 끝까지 읽었어요. 키클거리면 서요. 내가 이렇게 공감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회중에게 공감하지 않을까

생각했죠.” 데뷔한 지 4년이 지난 그는 이제까지 경력이 얼마 되지 않아 의견을 내기 어려웠지만 이번 영화를 하면서는 자신의 생각을 많이 얘기했다고 말했다. ‘꽃보다 남자’나 ‘그대 웃어요’에서 그가 연기한 캐릭터들이 밝고 활발하다면 ‘시라노-연애조작단’의 회중은 다소 다르다. 이민정은 인터뷰 내내 웃음이 많았지만 회중은 거의 웃지 않는다.

“실제 제 성격은 되게 밝아요. 그런데 저를 진짜 잘 아는 사람들은 밝기도 하지만 생각도 많고 고민을 많이 하는 걸 알죠. 남자 만날 때도 제가 쿨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미련도 많고 망설이기도 해요. 회중의 모습은 분명히 제 안에 있는 모습이고 그걸 영화에서 꺼냈죠. 회중은 20대 여자들과 맞닿아있는 부분들이 많아요.”

그는 ‘시라노-연애조작단’을 찍으면서 드라마와는 다른 영화의 작업 방식에 적응했고 영화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고 말했다.

이민정은 어느 스타 못지않게 주목 받고 있지만 갑자기 대중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데 대한 부담감도 솔직하게 털어냈다. “대부분 때 사람들 앞에서 게 힘들지 않았느냐고 아버지께서 반대하셨어요. 지금은 아버지가 우려하신 것을 200% 느끼고 있어요. 실수라도 하면 입방아에 오를 텐데 내가 실연음반을 걸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. 요샌 가끔 자다가 벌떡 깨 때가 있어요.”

“이민정이라는 배우를 믿고 영화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오르고 싶어요. 사람들이 후 그랜트가 나오는 로맨틱 코미디는 무조건 보는 것처럼 이민정이 나오면 재미있을 거로 생각하면 좋겠어요.” /연합뉴스

“아직 스타는 아니죠
작품 볼 만 하다고
사람들이 생각해야
진짜 스타인 거죠”

‘제빵왕 김탁구’ 박상면

“묵직하고 점잖은 역이라 고민 출연 안했으면 큰일날 뻔했죠”

“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. 묵직하고 점잖은 역이라 저랑 성격이 전혀 다른 인물이잖아요. 그런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(웃음)”

박상면(42)이 KBS 2TV ‘제빵왕 김탁구’에서 팔봉제빵점의 ‘대장’ 양인목 역을 맡아 모처럼 우직한 연기를 선보이며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. 이 드라마에서 그는 주인공 김탁구(윤시윤 분)가 팔봉선생(장항선)에 이어 믿고 의지하는 인목 역으로 점잖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

“그간 주로 웃긴 캐릭터를 해왔으니 시청자가 ‘안 어울린다’고 할까봐 걱정했죠. 이전에도 두 번 진지한 역할을 했는데 무척 힘들었어요. ‘그래도 웃겨요’라는 반응이 나왔기 때문이죠.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이번 드라마에서는 처음부터 시청자가 박상면의 인목을 받아들여줬죠.”

실제로 박상면은 최근에도 영화 ‘주유소 습격사건’, 드라마 ‘세 친구’와 ‘여사 부일체’에서 코믹 연기를 펼치는 등 늘 ‘웃음’과 한 몸처럼 붙어다녔다. “사실 고민하다가 출연을 안 할 뻔했어요. 그러다 방송 한 달을 남기고 막차를 탔는데 대박이 나서 너무 기쁘요. 제빵실에서 모두 ‘대장’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음에 들고요. 또 이런 배역도 잘 어울린다는 소리를 들어서 좋고요. 다만, 농담은 한마디도 못하는 게 좀 불편해요.(웃음) 촬영하면 이만위 씨 등과 함께 대사를 치고받고 싶은 순간이 많아요. ‘여기서 이렇게 하면 웃길 텐데’ 싶은 순간이 있는데 그것을 꼭 참는 게 좀 힘들어요. 그래서 웃 들어가기 전에 한껏 농담을 하며 몸을 풀지요.”

촬영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다고 한다. “김탁구가 눈을 다쳐 제빵실을 떠난다고 했을 때 ‘바보같은 놈’이라며 붙잡으며 이야기할 때 눈물이 막 나와서 NG가 났어요. 인목은 대인이라 눈시울이 붉어질 수는 있어도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되는데 감정에 몰입하다 보니 눈물이 흐르더라고요. 또 구일중(전광렬)이 마침내 아들을 찾아 ‘탁구!’ 하며 울 때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청 울었어요. 이 드라마가 의외로 눈물을 많이 흘리게 하네요.”

박상면은 “이번 작품을 통해 시청자가 내게 소탈하면서도 진솔한 모습을 원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”며 “죽을 때까지 보여줘도 부족하겠지만 좋은 연기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”고 말했다.

“죽을 때까지 보여줘도 부족하겠지만 좋은 연기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”고 말했다.

“죽을 때까지 보여줘도 부족하겠지만 좋은 연기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”고 말했다.

“죽을 때까지 보여줘도 부족하겠지만 좋은 연기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”고 말했다.

“죽을 때까지 보여줘도 부족하겠지만 좋은 연기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”고 말했다.



http://www.hankooktea.co.kr

한국제다

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

고품질 녹차
친환경 다원
한국제다
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63-4
T.222-2902.3973



한국제다는
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
各種 유기농 제다
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
국제 녹차 품평회에서 최우수상 수상
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(금상) 수상
L.A 외 3개국 수출중
ISO 22000 인증 획득
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인의 차만 남품
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인이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.



제품문의 · 광주 차생원 : 062)224-2902 · 광주 신세계점 : 062)360-1232 · 광주 롯데점 : 062)221-1037 · 광주 현대점 : 062)510-7040 · 목포 차생원 : 061)281-1002 · 서울 차생원 : 02)730-2983 · 부산 차생원 : 051)256-7007-8